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9.1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세르비아, 자국내 헤즈볼라 테러단체 지정
 - 9.13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내에서 활동중인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 전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. 이에 「폼페이오」 미국무장관은 ”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단체가 유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”라고 언급
- 유럽안보협력기구, 코로나19 상황下 대테러 국제 협력 강조
 - 9.14 유럽안보협력기구(OSCE) 대테러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테러단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면서, 국제적 협력만이 이들을 제지할 수 있으며 새로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
- 유럽 주요국, ‘스태이블 코인’ 규제 필요성 제기
 - 9.14 유럽 주요국은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량 증가로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, 향후 ‘스태이블 코인’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

아·태평양

- 아프간, 정부-탈레반 평화협상 돌입
 - 9.12 '01년 아프간 내전 발발 이후 19년 만에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첫 평화협상을 개최. 뉴욕타임즈는 “양측 간의 첫 대면이고 △정부 권력분할 형태, △여성 인권문제, △탈레반 조직원의 정부군 편입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” 전망

○ 법원, '테러 자금' 송금한 외국인 실형 선고

- 9.14 서울중앙지법은 '17.7월 취업비자로 입국 후 시리아·러시아 등에서 벌어진 폭탄테러 배후로 지목된 해외 무장단체에 약 786만원의 활동자금을 송금해 「테러자금금지법」 위반 혐의로 검거·기소된 우즈벡인(39세)에게 지난 9일 추징금 786만원 및 징역 2년형 선고
- * 경남의 이슬람사원에서 만난 중앙아시아 출신자들에게 포섭

○ 호주, ISIS 동아시아지부 테러단체 재지정

- 9.14 「피터 듀턴」 호주 내무장관은 최근 ISIS 동아시아지부의 활동 재개*와 관련하여 “현재 호주는 ISIS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ISIS의 위협 대응 및 자국민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ISIS 동아시아지부를 테러단체로 재지정한다”고 발표
- * 필리핀 민다나오섬을 중심으로 ISIS 전투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, ISIS 연계세력 ‘아부사야프’의 테러활동도 점차 확산 중

○ 아프간 전문가들, 美 주도의 '테러와의 전쟁' 실패 평가

- 9.15 아프간의 유명한 정치전문가 「샤슬 하크 아리안파」는 탈레반·알-카에다에 대한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저항세력을 뿌리 뽑지 못하고 아프간에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으며,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
- * 「만수르 파이즈」 정치전문가는 아프간에는 알-카에다 조직만 활동했었는데, 美軍 주둔 후 테러단체가 2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분석

아프리카

○ 모로코, ISIS 추종 극단주의자 9명 체포

- 9.10 모로코 보안당국은 수도 라바트 외곽에서 ISIS를 추종하는 극단주의자 9명을 검거하였으며 은신처에서 폭약벨트·질산암모늄 3kg·전자장비·무기 등을 압수하였다고 발표

英, 런던 지하철역 급조폭발물(IED) 테러 발생

- '17.9.15 英 런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'파슨스 그린역'에 정차한 열차의 출입문이 열린 직후 열차내에서 급조폭발물이 폭발하여 30여명이 부상
 - 좌석 옆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타이머가 장착된 폭발물 일부가 폭발
 - * 완전히 폭발되었을 경우 많은 사상자 발생 추측
- 테러 직후, ISIS는 선전매체 '아마크통신'을 통해 자신들의 파견대가 테러를 자행하였다고 주장
- 「테리사 메이」 총리는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, △테러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'위급'으로 격상, △군병력 및 무장경찰 1천여명 주요 교통망에 확대 배치, △대대적인 용의자 추적 등 지시
 - 경찰관 수백명이 CCTV 확인 등의 수사를 통해 총 6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고, 이들은 10대와 20대로 구성된 이라크·시리아 난민들로 확인

〈급조폭발물(IED: Improvised Explosive Device)〉

- (정의) 정해진 규격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직접 제작한 폭탄이나 폭발물 또는 기존 폭탄을 개조한 형태의 폭발물을 의미
- (특징)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조합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폭탄에 기폭장치를 추가하여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도록 제작
 - 은밀하고 기습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이나 무장 단체들의 테러에 주로 사용
- (대응) 전파교란 기술을 이용하여 IED의 원격조종 기폭장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등장하였으나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음